

2006 건설의 날 개최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 을 주제로 한 ‘2006 건설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기관장, 및 건설업계 임직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호산업(주) 신훈 대표와 심대양개발(주) 정장울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김경호 한경기전(주) 대표와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성열구(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가 산업포장을, 황갑주(주)광장설비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일반건설업계 대표 및 유관단체 임직원 등 97명에게도 정부포상 혹은 건교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명숙 총리는 치사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인 우리에게 건설산업은 GDP의 약 17%를 담당하는 국가의 주력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건설 부문은 1965년 첫 해외진출 이래 올해로 총수주액 2천억불을 돌파해서 우리 경제도약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어 “정부는 건설산업이 다시한번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참여 정부는 일시적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우리 건설산업을 선진화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반세기 건설의 역사 동안 늘 평탄한 길

업계소식



▲ 200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을 걸어오진 않았으며 올해도 본격적인 회복기로 나서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건설인들도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홍사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주택건설 등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회고하면서 “건설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친환경 건설과 성실시공으로 국민친화적인 이미지를 심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2006 건설의 날’ 행사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 을 주제로 건설산업의 활약상과 건설인들의 불국의 투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방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호산업이 시공 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공사가 수

범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주요 건설 17개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건설의 날’ 은 지난 1980년 유공자 포상을 통해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의 날’ 은 ‘건설진흥추진대회’ 를 2년마다 개최하는 격년제 행사의 형태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2003년부터 연례행사로 바뀌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설비건설업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설비건설업계 ‘2006 건설의 날’ 수상자 명단

성명	상호	직위	훈격	소속
김경호	한경기전(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서울특별시회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산업포장	대전·충남도회
황갑주	(주)광장설비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회
강현우	(합)천우	대표이사	건교부장관표창	강원도회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표이사	건교부장관표창	경북도회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교부장관표창	서울특별시회
이경호	(주)대신공영	대표이사	건교부장관표창	충북도회
위울환	(주)소림기계설비	대표이사	건교부장관표창	광주·전남도회

업계소식

영광의 설비건설인들- 수상자 프로필



▲ 김경호 한정기전(주)대표가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고 있다.

은탑산업훈장

김경호 한정기전(주) 대표이사

1964년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양강철공업(주)와 유신금속공업(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78년 한경산업을 설립, 1985년부터 한정기전(주)의 대표이사로 40년간 종사한 설비건설업계의 산증인이다.

특히 기계설비 자동제어분야에서 시공공법 및 기술개발에 오직 한길로 매진하여 기계설비업계 및 자동제어설비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자동제어공사(광장비와 공통신을이용한 각종 장비 자동제어), 한국통신 서울통신센터(최첨단 IBS 적용), LG-Philips 구미·파주 LCD공장의 자동제어시스템 및 동부제강 인천공장 CGL

라인(분산제어시스템 도입) 등을 시공하였다.

대전 을지대학병원의 ESCO사업 및 삼성서울병원의 IHS(Intelligent Hospital System) 등의 자동제어공사를 시공하였고 타워펠리스에는 첨단 자동제어시스템 설비 및 주방환기시스템 설비를 도입하여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가능토록 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임원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를 역임하면서 원·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반부패 및 투명사회 조성과 OECD뇌물방지협약 및 UN의 반부패협약에 동참하였다.

또한 산학협력·기술정보교류, 장학금 기부 등을 통한 산학공동발전과 설비건설인 양성 등에도 기여하였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사회복지단체등에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며,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는 수재의연금 등을 기부하는

업계소식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포장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980년 신설건설(주)에 입사하여 근 무한 경험을 토대로 1989년 (주)대청 엔지니어링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분야, 연료전지분야 및 항공우주분야 설비공사 등 파일럿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시공하여 기계설비분야의 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350명의 설비전문 기술인력을고용하여 대전·충남지역의 고용 촉진과 기술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부회장(3, 4대) 및 회장(5, 6대)을 역임하면서 한밭대학교 및 우송공업대학교와 연계하여 설비기술자를 양성하고 충남기계공고와 연계하여 설비기능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아 「누설해연료봉 검사용 수중 초음파 탐촉자 이송 및 제어장치와 방법」의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기 온도제어 시스템」 프로그램도 개발,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표창

황갑주 (주)광장설비 대표이사



1989년 설비공사 전문업체인 (주)광장설비를 설립하고, 1998년 품질경영인증(ISO 9002)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설비공사분야의 국내 기술발전과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윤리위원과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올바른 입찰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대한주택공사의 우수시공업체를 3회 수상하였으며 KT, 태영, 경남기업 등에서 우수시공으로 각종 감사, 공로상, 우수시공상 등을 다수 수상하였다.

중수도시스템에 관한 연구,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냉방방식의 특성 및 경제성 등 다수의 연구자료를 발간하여 에너지 절약방안에 기여하였다.

1998년부터 관악구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장학재단에도 참여하여 사회사업에 공헌하였다.

건교부장관표창

강현우 (합)천우 대표



(합)천우 대표사원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장으로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보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

공사현장의 철저한 조직관리로 부실시공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설비건설업계의 질서 확립 및 지역 업체간 유대강화의 선도적인 역할과 청소년 선도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표이사



1993년 (주)해 광 공 영을 설립, POSCO 내 기술연구소 건립공사, STS3 제강 연주 10차 공사 STS 설비능력 증강 등 플랜트설비공사와 일반시설물로 동아생명 대구사육, 경북 농산물 물류센터, 서울 동작구 종합체육관 등 다양한 시공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굳혔다.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부실공사추방 업계 자율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모범을 보인 공로로 대한설비건설협회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업계소식

인간존중, 안전 최우선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무재해 무사고 현장을 실현하고 있다.

정달홍 구보공영(주) 대표이사



구보공영(주)(현 (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서 현재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의원 및 서울특별시회 운영위원으로 회원사 권익보호와 화합에 노력함은 물론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업무의 체계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비건설업계에서는 선두적으로 전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및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건설업을 등록, 현재 리비아 벵가지중양병원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이경호 (주)대신공영 대표이사

7,500여 세대에 이르는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기여하였다.



위울환 (주)소림기계설비 대표이사



우수한 시공능력과 품질관리로 건설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체육부분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건설한 설비전문건설업체로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창립에 기여는 물론 각종 제도개선 및 보완 추진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광주시 부실시공범시민공동감시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실시공 근절에 적극 앞장섬은 물론 시공상 문제점 발견과 개선을 통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현장실습생으로 투입함으로써 산학협력의 모범을 보임은 물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회사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다. 🌟

협회소식

김경희 상임이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자랑스런 주공인상 수상

대한 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지난 7월 1일 경기 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사옥 대강당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갖고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에게 '자랑스런 주공인상'을 수여했다.

대한주택공사는 김경희 이사의 수상 선정에 대해 "지난 94년 대한주택공사를 퇴사한 후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등록기준 강화 및 저가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 추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하고 건설분야 기술자 양성, 공사현장의 품질 점검 및 국내·외 유관 단체와 기술교류 증진 등 건설분야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주택공사 재직 직원의 모범이 되어 자랑스런 주공인으로 선정" 하고 밝혔다. 🌟



회원사 소식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서울공대 AIP 총동창회 회장 선출



서울 특별시회 강석대 회장이 지난 6월 22일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Advanced Industrial Program)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총동창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강석대 회장은 회장에 선출된 후 “사고의 전환과 도약이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에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지금까지 AIP과정에서 배우고 가꾼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AIP 총동창회 활성화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AIP 로타리 클럽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동문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AIP 및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과대학 AIP 교수들에게 매년 한명의 교수에게 연구비 지원 등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 AIP는 현재 35기까지 1,8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강석대 회장은 15기이다. 

회원사 소식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및 이전개관 유공자 정부포상



국립 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지난 6월 30일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및 이전개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했다.

수상자는 설계, 시공, 감리 등 박물관 건립에 참여한 우수 건설업체 임직원 및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을 새 박물관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전 전시하여 성공적인 개관에 공적이 큰 관계공무원으로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4명, 국무총리표창 15명 및 문화관광부장관상 63명 등 총 102명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 시대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후 민족문화의 공지에 합당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

공하고, 통일 한민족시대에 대비하고자 1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또 하나의 소중한 문화재다.

설비건설업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성명	소속	직위	훈격
황원택	(주)삼신설계	대표	국무총리 표창
박용한	(주)성아건설	대표	국무총리 표창
김영호	(주)우원	회장	대통령 표창
임종태	(주)우원	대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김천용	한미설비(주)	대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김정식	(주)나라콘트롤	대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이봉재	(주)삼우HNC	대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